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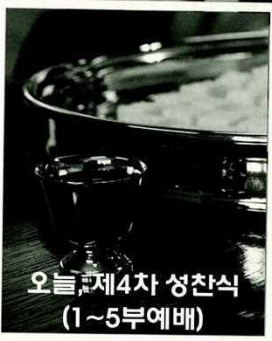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5월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4차 성찬식
(1~5부예배)

두 달여의 사순절 기간(3.9~4.23)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자의 소망이 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특히 금요찬양집회 시 선포된 '죽음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성찬예배(수치, 시 83:16)를 지나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합니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5월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

다음 주일, 어린이 · 어버이 주일
(2 · 3부 가족연합예배)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지명과 역사

마태가 기록한 지명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애굽에서의 노예생활과 해방, 가나안 정착과 왕권 그리고 멸망과 포로, 귀환 등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마태는 이것을 메시아의 탄생을 마태에 두고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마 2:12~15; 호 11:1; 출 4:22~2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예수의 육체적인 삶 속에 그 상대성이 있다는 것이다(마 2:16~18; 렘 31:15~17, 40:1). 출애굽과 바벨론의 포로 사건은 구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마태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의 완성이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출애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심의 결과이다(출 2:24, 3:16, 6:5~8). 마태는 출애굽과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을 예수의 삶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내용의 본보기로 사용하였다. 한결을 더 나아가 구약에서 아주 평범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말씀을 선택하여 예수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마태는 이스라엘과 예수를 대등한 위치에 놓았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약속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열매가 기적적으로 완성된 민족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며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약속을 위한 통로요, 도구이다.

집에 질려 있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던 이 어린 아이가 약속의 완성을 마태가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놀랄만한 사실이다. 참으로 마태복음 처음 장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구약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분명하게 모세의 이야기를 반영해 준다. 적대감을 갖고 있는 악한 왕, 어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도망치는 사건, 악한 왕의 죽음, 그리고 돌아오는 일들이 다 모세에게 있었던 일들과 상통한다(출 4:19). 이러한 이야기는 모세가 훌륭한 해방자였으므로 절박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신 18:18).

예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구약은 선포하였다. 마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한 것은 복음서의 나머지 내용을 위하여 이를 표제로 삼은 것이다. 마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항상 이 표제로 돌아온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와 그의 가르침, 고난 받으심과 죽음의 모든 내용은 항상 시작에서 알려진 '원상'에 연결이 된다. 이는 단지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는 구약 전체를 약속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본 것이다. 신약을 기록한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마태에게도 구약의 말씀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노래 가사처럼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요,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른다. 구약은 가능성이 있는 약속, 소망을 주는 약속이다. 아멘.

CHRISTIAN FAMILY

*and when he had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And for an entir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considerable numbers;
an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Acts 11:26)*

At the start of the church in Jerusalem many believers in Christ scattered abroad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at occurred in connection with Stephen. Some of these scattered believers, men of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preaching the Lord Jesus to Gentiles. After a large number of Antioch residents turned to the Lord, Barnabas and Paul were called there, "And for an entir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considerable numbers; an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Ac. 11:26). This term was used to describe followers of Christ or Christ's people. Christians are followers of Jesus Christ.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Christian and a non-believer? Are Christians better, more successful, smarter, healthier, or wealthier than non-believers? No,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s and non-believers has to do with how they think and act. Since today is the second Sunday of May, a special family day, let's highlight what the Christian family's living faith looks like.

The Christian family thinks like Jesus Christ. Since they've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ir desire is to be His servant and follow His ways. They've experienced being born again and having their entire worldview change.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n. 3:3). Born again Christians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All Christians must be born again to receive eternal life. Christian families aren't proud people, but humble souls with soft hearts like Jesus. Their humility comes from Christ's example,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 2:5-8). Christian families think this way. They don't follow the ways of the world,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 12:1-2). Christian families are dedicated to thinking and doing God's will, not their own will.

The Christian family has the love of Jesus Christ. Their love is not the same as non-believers who love others for their own satisfaction. Romantic and philanthropic love is all selfish. Christian love is selfless. Jesus' love is wholly selfless and spiritual. His agape love overcomes all materialism and truly cares for the soul. Christian families receive God's great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 (Rom. 5:5). This wonderful loving power cannot be destroyed. It isn't something given only at certain times, but is always present. Christian hearts are like Christ's heart, which is always forgiving and loving,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as beloved children; and walk in love, just as Christ also loved you and gave Himself up for us, an offering and a sacrifice to God as a fragrant aroma" (Eph. 5:1-2).

The Christian family acts like Jesus Christ. They talk, sing, and pray like Jesus, "that, in reference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you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Therefore, laying aside falsehood, speak truth each one of you with his neighbor, for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Be angry, and yet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and do no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 (Eph. 4:22-27). Christians have a new life in Christ, and they must continually allow the Holy Spirit to renew their minds. Instead of filling themselves with worldly things, Christians desire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with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ing thanks for all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God, even the Father; and be subject to one another in the fear of Christ" (Eph. 5:19-21). Letting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makes your conversation, praying, and worship like Jesus.

The Christian family witnesses Jesus Christ. As born again Christians they are different now; they ar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foot by me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Mt. 5:13-14). Christian families let their light shine before others in such a way that others have the opportunity to see their good works, and glorify God who is in heaven. The Christian family believes Jesus, trusts Jesus, and shares His love with others. They give their thanksgiving to the Lord. Whoever they meet they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as He commanded,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My dear friends, let's glorify our Lord by being a good Christian family. We need to think, love, act, and witness like Jesus Christ. Whatever this life here on earth brings our way, we need to live with strong faith in Jesus Christ. Let's pray for all our communications and actions to be like Jesus. Amen. ■

그리스도인 가정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26)



김성관 목사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스테반의 순교와 관련해 일어난 박해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신자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갔습니다. 수많은 안디옥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으로 불러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낫고, 더 성공적이며 더 영리하고, 더 건강하고 또 더 넉넉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간의 차이는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특별한 가정의 날이니,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초점을 두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그들의 소원은 주님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서 모든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고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겸손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겸손함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필 2:5-8).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이 길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데 전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남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낭만적이고 박애적인 사랑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사심이 없으며 영적입니다. 그분의 아가페 사랑은 모든 물질주의를 압도하며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에

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특정한 때에만 주어지지 않으며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온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1-2).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하며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율호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자기를 버리고 각 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იდ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2-27).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야만 합니다.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19-21). 성령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대화, 기도, 예배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빛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중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와 행위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

필요새벽기도회 / 팔말까지

메시아의 죽음 ⑦

유다의 전 모습
(마가, 마태)

독 빌라도의 판결(3장)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 죽어 장사되신(4장)의 순서로 공부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는 메시아의 죽음 중, 제1장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메시아'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예수님은 겔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함께 갈 것을 촉구하셨다. 이때 가롯 유다가 등장하였다. 가롯 유다의 모습에 대해 마가와 마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와 마태가 각각 기술한 내용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마가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종교지도자들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관이 날라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막 14:1~2). 그러나 마태는 동일한 상황이 일어난 곳이 "가 아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마 26:3~5, 57~58, 69). 또한 가롯 유다가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하는 장면에 대해 마가는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막 14:10~11)라고 기술한 데 반해, 마태는 가롯 유다가 한 말(마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는 나)과 예수님의 몸값(은 삼십)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마 26:14~16).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친히 밝히셨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중에도 예수님은 만찬에 함께 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며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는 말쯤까지 하셨다(막 14:18, 20~21). 그리고 겔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막 14:41)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며, '죄인'은 가롯 유다를 지칭한다. 비록 마가는 가롯 유다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확실치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는 마가가 기술한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였다(마 26:21~23). 특히 가롯 유다의 언어습관과 그의 최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항상 '답바' 로마 23:7~8, 26:25) 불렀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뉘우쳐, 그 죄책감에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며 자살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였다(마 27:3~5, 10).

가롯 유다의 모습에 대한 마가와 마태의 기술은, 가롯 유다가 곧 우리라는 사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길 갈망하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던 그는 예수님을 '주님' 보다는 '답바'로 부르기를 좋아했다. 사리 분별이 빨랐던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하지 않자 곧바로 유대의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하여 예수님을 팔았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였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절대로, 책임을 질 만한 '그 무엇'이 없는 죄인들이다. 책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셨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보혈이 되게 하소서," 아멘.

* 마태 필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금년 82세가 다 가기 전에 단기선교를 작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종합검진 결과 전립선 암이라고 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나면 정도 나타난다고 했다. 주께 간구하였다. "주여, 전립선암을 인정치 마옵소서." 수술을 결정하고 재검을 받은 결과, 담당 선생님은 암이 사라졌다고 했다. 너무 놀랍고 기쁜 마음에 선생님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나는 곧바로 선교팀에 지원하여 훈련에 입했다. 훈련 중반에 이르자 십자가의 고난이 태산과 같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어 암기였다. 다른 팀원들은 잘 암기하여 예정대로 나아갔다. 밤낮 심혈을 기울였으나 백지 상태로 되돌아올 뻔하였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책임을 지세요"라고 간구하였다. 언어 암기 시간은 조용히 다가왔다. 심사관 앞에 섰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였으니 떨립니다." 어렵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며칠 후 언어훈련을 지도하신 선생님도 전도문화를 즐기고 줄여서 나에게 직접한 선교언어 문장을 두 장으로 정리해 주었다. 2차 선교언어심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선교지에서 남녀노소를 집했다. 참으로 순수하고 티가 없는 백성,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세우고 복음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혼들, 갑갑하고 메마른 영혼들. 생명을 공급하는 풍로의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드린다.

최성용(은퇴장사, 3교구)

전도의 기쁨

제계 전도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선교 떠나기 전 드리는 금요일 파송예배 시간은 처음 떠나는 단기선교에 대한 떨림과 설렘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우리 나라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여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니만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8박 9일간의 선교사역은 제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갖는 경건시간은 하루를 영적으로 재부정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저녁의 평가회는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끝없는 말씀과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전도언어 25개 말씀을 외우기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막상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부끄럽고 준비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저의 어눌한 입술을 열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에 능력 주심으로 그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기도 못한다는 저의 입술을 열어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저에게 누룩처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정혜(집사, 16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일(월) - 5월 9일(월)	19교구 2팀	김학희
5월 2일(월) - 5월 10일(화)	5교구 1팀	최동식
5월 2일(월) - 5월 10일(화)	7교구 1팀	이근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5일(월) - 5월 3일(화)	6교구 1팀	김정배



성금요일 성찬예배 “수치”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시편 83:16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셨지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바로 나의 수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박금리(집사, 아산시2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2010년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겠다고 하고서는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아무 것도 아닌데 삶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고 하면서 또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아갔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다정(내과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날, 주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을 회개 하였습니다. 다시 성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은혜 가득하였습니다. 최웅(집사, 2부)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 곁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누구도 머물지 않았고, 영원한 형벌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죄인이 아닌 자가 감내해야만 하는 죄 값의 무게만이 주님의 양손을 짓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주의 고난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녹아내리며 주님의 보혈을 감당하기 힘들어 그 능력 앞에 엎드려야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며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안에 나 간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임수현(집사, 청년2부)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머릿속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했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저를 주여, 용서하소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고통을 당하셨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회개의 눈물 속에서 이제야 인간적인 거룩함과 외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며 사는가?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회개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매순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과 늘 고통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영희(집사, 192교)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뿐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구한해 주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찬을 통해 내 죄를 다시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장호(집사, 24교)

평소 학업과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주님을 잊고 살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현정(교무부)

'수치'라는 주제로 성금요일 성찬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은 하였지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바치겠다는 고백까지는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알리라 회개할 때 주님의 자비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맘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 맺는 삶으로 거듭나 그 험한 십자가를 믿지 않는 가정에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남경(청년1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싶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헌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헌수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헌수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의 주님! 저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깨달음과 믿음 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연진(교무부)

간담과 나눔

이제 제 나이는 스물다섯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젊음의 때이고, 아직은 공부하며 비전과 꿈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제 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양심회에서 목사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 저의 마음에 부활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관습적인 것도 아니고,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주변 앞에서 받아야 하는 실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실제. 관념도 아닌, 허상도 아닌, 실제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 정확하고도 완전한 진리! 생명이 진리인 것처럼 죽음 역시 진리임을 주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셨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또한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 계획을 보이며 부활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곧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자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정하셨고 곧 부활도 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신 예수님, 세상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가장 미려한 보이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죽음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록에서처럼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은혜, 주님이 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단어가 없어서, '이처럼' 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 지신 십자가에 있음을,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려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힘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며, 또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김 결(대학부)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

고등부 올참데이(All참day)

지난 주일에 고등부에서 '올참데이'가 열렸다. '올참데이(All참day)'는 2011년도 고등부 새친구 초청 잔치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 뜻은 '새 친구와 장기 결석자들 모두 (All)가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날(day)'인데,

이는 새롭고 참신한 것에 민감한 고등부 학생들에게 맞추어 변화하는 고등부의 한 모습이다.

달라진 고등부의 모습에 학생들은 놀람과 동시에 매우 즐거워했다.

친아보다 귀한 새로운 친구들과 장기 결석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취재·노하은, 김성혜 기자

1. 인도자(김자율)/새친구(고다연)

어떻게 고등부에 나오게 된 건가요?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어요?

· 친구가 교회에 가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 따르며 여러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를 정해놓고 오래 다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친구가 All참day에 가라고 해서 오게 됐는데,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잘 나와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어요. (고다연)

2. 인도자(이백영)/새친구(박지은, Lisa Choi)

어떻게 고등부에 나오게 된 건가요?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어요?

· 친구가 가라고 하는데 궁금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박지은)

· 벅쿠버에 사는데 잠시 한국에 나와서 할머니 댁에 있는데, 친구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벅쿠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분위기는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Lisa Choi)

· 친구들한테 같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선뜻 같이 와줘서 고맙요. (이백영)

오늘 All참day 어땠어요?

· 분위기가 어떨지 알고 친숙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쉽게 적응하고 같이 즐기면서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좋았어요. (박지은)

앞으로 교회에 계속 나올 생각이 있으냐?

· 네. 매주일 나오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박지은)

· 이제 곧 나가야 돼서 계속 나오진 못하지만, 다니던 교회에 열심이 나갈 거예요. (Lisa Choi)

친구들을 앞으로 계속 잘 인도할 수 있었어요?

· 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잘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백영)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은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마 18:13)

학교 앞 전도

딩동딩!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면 학자 지랄 우르르 아이들이 몰려 나온다. 존이, 은우, 가현이 얼굴을 찾기에 바쁜 시간이 된다. "선생님!" 넘어질 듯이 뛰어오는 사랑스런 아이들, 우리는 손을 잡고 학교 옆 놀이터에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파릇하게 돌아나는 새싹도, 하얀 솜처럼 피어나는 목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해 준다. 3월이던 시작되는 학교 앞 전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총의 시간이다. 내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품은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작은 시간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다. 한 번만 교회에 오겠다던 경현이, 이제는 새친구와 함께 열매 반 뎀 알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중등부에서 등반한 민우, 선교를 가졌으며 기도후원자가 되어 달라고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과의 만남.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예수님. 매 순간마다 체험케 하시는 이 귀한 시간, 감사함으로 순종할 뿐이다.

강영희(교사, 조동2부)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십자가는 구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린도전서 1:18)

✕종교개혁에서 알리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옮겼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다. 죄인인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 십자가는 세상으로 자주 빠져나가려는 나를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좋다. 나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가 많아졌다. (이경선)

✕예수님은 나를 지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셨다.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되었다.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곽성희)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 주일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다. (김성영)

✕부모님의 권유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 좋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한용필)

✕종교개혁 집사님 부부의 권유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 하셔서 영원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한다.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과 설교를 듣고 늘 신앙제임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몸과 마음이 청결해지고 늘 기쁨과 신앙 안에서 깨어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이태영)

✕여자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종호)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종교개혁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유초중도서실 도서와 영상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유초중 도서실

주일 아침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제1교육관 7층

주일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주일학교 예배를 마친 어린이들이 PC방이나 놀이터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마련된 섹터, 도서실이 있습니다. 와 보세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필요한 좋은 믿음의 책들이 구비된, 깨끗하고 조용한 도서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유초중 도서실에는 영유아 도서방, 초중 도서방, 영상방으로 책과 영상물이 함께 갖추어져 있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중등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예배와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교육관 7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취학 영아들에게는 책을 읽어주는 도우미 선생님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구비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의 생물을 같이 솟아나는 금강줄과 같게도 도움을 줍니다. 도서와 영상물을 통하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습관을 기르고 천국일꾼으로 자라가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서실로 오세요!

*제1교육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려, 한 층 더 올라오세요.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029	문하영	영아부	16	출생	2052	유영한	11	김병희	
2030	이지수	영아부	25	출생	2053	김지현	양육반	2	허민선
2031	조윤선	양육반	20	박석선	2054	김소현	양육반	16	이가영
2032	한화영	양육반	19	조민숙	2055	배성미	청년1부	13	김현자
2033	김성균	청년1부	15	박옥희	2056	정구현	2	허민선	
2034	이대선	양육반	16	임난향	2057	김시은	양육반	1	유현준
2035	윤병선	양육반	16	장세복	2058	정채원	영아부	2	허민선
2036	김혜정	초등2부	6	정경희A	2059	조은호	청년1부	18	
2037	장예서	영아부	2	박명자	2060	이민나	청년1부	5	
2038	박경은	양육반	13	장태욱	2061	이시라	청년1부	5	
2039	유수정	유치부	22	박순혜	2062	이보라	청년1부	5	
2040	최숙진	양육반	10	이월산	2063	김보희		15	김보배
2041	문광영	양육반	11	이시은	2064	크리스탈		24	김선영
2042	정원준	양육반	13	안지현	2065	김지훈	청년1부	1	김철남
2043	이선희	양육반	21	김영숙B	2066	정희문	초등1부	22	김숙자A
2044	송명선	양육반	7	이순기	2067	전상열		10	김정현
2045	김소희	청년1부	11		2068	박기봉	양육반	16	구승희
2046	오혜경	양육반	10	염기자	2069	조민주		2	
2047	임재민	대학부	21	이창기	2070	오선호	청년1부	16	배연식
2048	이순옥	양육반	16	심영순	2071	정현정		14	홍애경
2049	조병선	양육반	18	변연숙	2072	이태광	청년1부	21	이민영
2050	곽 준	양육반	14		2073	권민선	청년1부	2	
2051	오영옥		5	조옥현	2074	김도희	양육반	17	K.U.I

교회 소식

모임

- 1. 집사팀 연합회례
일시: 2월(월)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강림교회
- 2. 정기회례
일시: 4월(수) 수요일 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별세

- 1. 김대건 씨(충남해미 집사의 사부, 4월 4일 개교 6주) / 4월 24일 별세, 나이 27일 장례
- 2. 정병태 씨(전남대안 안수집사의 모친, 구명복 권사의 시모, 5월 2주 수요일) / 4월 20일 별세, 나이 28일 장례

결혼

- 1. 허노우미 씨(한인교회 안수집사) 씨의 아들과 김효삼 양(강원도) 씨. 4월 27일 장례
- 2. 정병태 씨(전남대안 안수집사의 모친, 구명복 권사의 시모, 5월 2주 수요일) / 4월 20일 별세, 나이 28일 장례
- 3. 주미환 군(전남대안 안수집사) 씨의 아들과, 1교구와 박상애 양(마케선 성도, 김영호 성도의 딸, 타교) / 7월(토) 12:00, 누릴당목회 대령
- 4. 임태권 군(전남대안 안수집사) 씨의 아들과, 1교구와 김민정 양(전남대안 안수집사) 씨의 딸, 13교구 / 7월(토) 13:00, 하이랜드 컨벤션
- 5. 박상애 양(마케선 성도, 김영호 성도의 딸, 타교) / 7월(토) 14:00, 신반교교회 대령(장례식)
- 6. 박상애 양(마케선 성도, 김영호 성도의 딸, 타교) / 7월(토) 14:00, 신반교교회 대령(장례식)
- 7. 박상애 양(마케선 성도, 김영호 성도의 딸, 타교) / 7월(토) 14:00, 신반교교회 대령(장례식)
- 8. 박상애 양(마케선 성도, 김영호 성도의 딸, 타교) / 7월(토) 14:00, 신반교교회 대령(장례식)

영유초등 도서실 영회·독서 강령서 대회

주제: 개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 구약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대상: 초·중·고등
문의: 내선 436, 010-907-6169
마감: 6월 12일(목요일) 28일 발표

집사팀 연합회

일시: 매주일 15:20~16:00(월) 22일(목)까지
장소: 제1교구관 507호
대상: 안수집사 전원

권사팀 연합회

일시: 매주일 15:00(월) 29일(목)까지 / 5월 4일(수) 12:30
장소: 제1교구관 507호

10교구 영성훈련

일시: 5월(월) 10:30
장소: 총합사도원

21교구 영성훈련

일시: 5월(월) 10:30
장소: 총합사도원 사령관
출발: 총합사 9시(토) 9시 10분(토) 9시

13교구 영성훈련

일시: 7월(토) 9:00
장소: 총합사도원

17교구 영성훈련

일시: 7월(토) 10:30
장소: 총합사도원 사령관

총회 교회주변 지도

일시: 여전도회 11월(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4월(토) 14:00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3-5-7(토): 307호 2-4-6-8(토): 407호

전도회 1-2교구 주례기도회

일시: 19월(토) 9:00
장소: 제1교구관 507호

선교연회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제1교구관 507호(월) 508호(수) 509호(목) 510호(금) 511호(토) 512호(일)

본당 자이더

설비 및 리모델링 공사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

일시: 4월 18일~6월 30일